평정심이란 한발 물러서 상황을 관조하고 맥락을 성찰하며 숨 고르기를 하는 과정이 아닐까.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외부의 자극에 동요하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.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세상은 공정하지 않으며 욕망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조금 덜 흔들린다.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불필요한 주변을 정리하고 혼자 있는 시간의 충만함을 즐길 때 마음은 제자리를 찾는다.